

2024  
고2 문학  
해냄

## 2024 고2 문학 해냄 | 3(1)(1) 흥보가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AI 직전 보강



선생님. 「흥보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흥보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2. 장면마다 어울리는 판소리의 장단을 묻는 문제
3.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
4. 작품에 드러난 당시 시대상을 묻는 문제



「흥보가」의 표현상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흥보가」에는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 해학적인 장면들이 제시되고 있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작품은 판소리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울리는 판소리의 장단이 따로 있다면서요?

맞아. 「흥보가」에는 진양조, 자진모리, 중증모리, 중모리 등이 각 장면마다 알맞게 제시되어 있고, 아니리도 등장하면서 각각 장면에 어울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



이 작품에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고 들은 거 같아요.

오, 많이 알고 있네? 흥보와 흥보의 처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흥보가 '(웃)장'의 '장'과 '닭장'의 '장'이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당신 꽂았소.", "꽝다니, 계란(鷄卵)이 꽂지 사람이 꽂아."라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언어유희가 나타나지. 이와 비슷한 언어유희가 타 작품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복습 꼭 해야해~



알겠습니다. 작품에 드러난 당시 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읽어 봐서 잘 알겠지만, 이 작품의 배경은 조선 후기야. 당시에는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점차 해체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하락이 되었어.



AI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_\_\_\_\_」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_\_\_\_\_」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_\_\_\_\_의 특징을 묻는 문제
2. 장면마다 어울리는 \_\_\_\_\_의 \_\_\_\_\_을 묻는 문제
3. \_\_\_\_\_를 활용한 \_\_\_\_\_ 가 드러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
4. 작품에 드러난 당시 \_\_\_\_\_을 묻는 문제



「\_\_\_\_\_」의 \_\_\_\_\_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보가」에는 \_\_\_\_\_ 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 \_\_\_\_\_인 장면들이 제시되고 있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작품은 \_\_\_\_\_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울리는 \_\_\_\_\_의 장단이 따로 있다면서요?

맞아. 「홍보가」에는 진양조, \_\_\_\_\_, \_\_\_\_\_, \_\_\_\_\_ 등이 각 장면마다 알맞게 제시되어 있고, \_\_\_\_\_도 등장하면서 각각 장면에 어울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



이 작품에 \_\_\_\_\_를 활용한 \_\_\_\_\_가 나타난다고 들은 거 같아요.

오, 많이 알고 있네? 흥보와 흥보의 처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흥보가 '(웃)장'의 '장'과 '닭장'의 '장'이라는 \_\_\_\_\_를 활용하기도 하고, "당신 꽂았소.", "꽝다니, 계란(鷄卵)이 꽂지 사람이 꽂아." 라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_\_\_\_\_가 나타나지. 이와 비슷한 \_\_\_\_\_가 타 작품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복습 꼭 해야해~



알겠습니다. 작품에 드러난 당시 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읽어 봐서 잘 알겠지만, 이 작품의 배경은 \_\_\_\_\_야. 당시에는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점차 \_\_\_\_\_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_\_\_\_\_이 되었어.



또한 \_\_\_\_\_가 확산되면서 \_\_\_\_\_가 널리 유통되었기도 하고! 이에 따라 놀부처럼 부를 축적하는 \_\_\_\_\_이 생겨났어.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여러 \_\_\_\_\_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데, \_\_\_\_\_가 사회 전반에서 큰 위력을 행사하자 관료들의 \_\_\_\_\_가 심해졌고, 민중들은 날로 악화되는 \_\_\_\_\_때문에 \_\_\_\_\_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야.



## 2024 고2 문학 해설

### 2024 고2 문학 해설 | 3(1)(1) 흥보가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 앞부분의 줄거리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이 맞닿은 곳에 흥보와 놀보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다. 형 놀보는 심술쟁이여서 (인물의 직접 제시) 온갖 못된 짓만 한다. 하루는 아우 흥보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며 흥보네 식구를 내쫓는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놀보의 모습이 드러남. 놀보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흥보 내외는 자식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고살 길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하다.

##### 아니리(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아니리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성현동 복덕촌(福德村)을 당도(當到)하여 고생(苦生)이 자심(滋甚)혈(더욱 심할) 제 철 모르는 자식(子息)들은 음식(飲食) 노래로 조르난듸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옛을 사 달라는 놈(열거법, 자식들의 요구를 구체화하며 가난한 상황을 드러냄.) 각심(1. 각 사람의 마음. 2. 각각 마음을 달리함.)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나앉으며, “아이구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고동뿌살이 목 성음(聲音)이 나오느냐.”, “어머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불면증(不眠症)으로 잠 안 오는 서름(설움)이 있소.”, “그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좀 해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드라(서럽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드려 주시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孫子)가 늦어 갑니다.(부모 평계를 대며 장가들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냄. 큰아들의 철없는 성격이 드러남.)(해당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큰아들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기(氣)가 막혀,

##### 진양조(가장 느린 판소리 곡조로 애절하고 무거운 느낌을 줌. 슬픈 분위기를 제시하는 데에 적절한 장단.)(해당 구절에 어울리는 장단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엇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살림살이의 형편)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지금까지 너를 장가보내지 않았겠으며), 중한 가장(家長)을 굽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구곡간장(九曲肝腸)).” ]([ [ ] : 가난한 형편에 가족들에게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하는 흥보 처의 슬픔과 모성애가 드러남.)

▶ 가난으로 고통받는 흥보 가족의 모습

##### 아니리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邑內)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요.”, “환자(還子)(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맡은 호방(戶房)(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서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한테 환자 섬(부피의 단위.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이나 얻어야 굽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九死一生)(‘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음’의 뜻. 여기서는 ‘절망적이지만 혹시 하는 마음’의 의미)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갓 좀 내오오.”, [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趙大妃) 국상(國喪)(국민 전체가 상복을 입던 왕실의 초상) 시에 백립(白笠)(흰 베로 만든 갓. 상주(喪主)가 쓰거나, 국상(國喪) 때 일반 백성이 씀.) 갓양(갓모자의 밑 둘레 밖으로 둉글넓적하게 된 부분)이 단단하다 해서 꼬름에 꼬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 [ ] : 굴뚝 속에 두어 연기로 검어지게 해서 쓰겠다는 말. 가난에 대한 해

연계 작품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해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그러다 금시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해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흥부 부부상」

★ 「흥보가」와 연계되어 출제된 내용

- 「흥보가」의 인물들과 「흥부 부부상」의 시적 대상 모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흥부 부부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흥보가」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달리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높이 사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앞부분의 줄거리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이 맞닿은 곳에 흥보와 놀보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다. 형 놀보는 심술쟁이여서 (인물의 \_\_\_\_\_ 제시) 온갖 못된 짓만 한다. 하루는 아우 흥보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며 흥보네 식구를 내쫓는다. (\_\_\_\_\_ 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_\_\_\_\_의 모습이 드러남. \_\_\_\_\_의 성격을 \_\_\_\_\_으로 제시함.) 흥보 내외는 자식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고살 길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하다.

**아니리**(창을 하는 \_\_\_\_\_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아니리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성현동 복덕촌(福德村)을 당도(當到)하여 고생(苦生)이 자심(滋甚)혈(더욱 심할) 제 철 모르는 자식(子息)들은 음식(飲食) 노래로 조르난듸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엿을 사 달라는 놈(\_\_\_\_\_), 자식들의 요구를 구체화 하며 \_\_\_\_\_ 상황을 드러냄.) 각심(1. 각 사람의 마음. 2. 각각 마음을 달리함.)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나았으며, “아이구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고동뿌살이 목 성음(聲音)이 나오느냐.”, “어머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불면증(不眠症)으로 잠 안 오는 서름(\_\_\_\_\_)이 있소.”, “그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좀 해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드라(서럽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되려 주시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孫子)가 늦어 갑니다.(\_\_\_\_\_)를 대며 장가들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냄. 큰아들의 \_\_\_\_\_ 성격이 드러남.) (해당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큰아들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기(氣)가 막혀,

**진양조**(가장 느린 판소리 곡조로 \_\_\_\_\_ 고 \_\_\_\_\_ 느낌을 줌. \_\_\_\_\_ 분위기를 제시하는 데에 적절한 장단.) (해당 구절에 어울리는 장단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엇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살림살이의 \_\_\_\_\_)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지금까지 너를 장가보내지 않았겠으며), 중한 가장(家長)을 깔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구곡간장(九曲肝腸)).” ] ([ : 가난한 형편에 가족들에게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하는 \_\_\_\_\_의 \_\_\_\_\_ 과 \_\_\_\_\_ 가 드러남.)

▶ 가난으로 고통받는 흥보 가족의 모습

아니리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邑內)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요.”, “환자(還子)(\_\_\_\_\_)에, 곡식을 \_\_\_\_\_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_\_\_\_\_에 꾸어 주고 \_\_\_\_\_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맡은 호방(戶房)(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서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한테 환자 섬(부피의 단위.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이나 얻어야 깔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九死一生)(‘\_\_\_\_\_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_\_\_\_\_’의 뜻. 여기서는 ‘\_\_\_\_\_이지만 혹시 하는 마음’의 의미)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나오오.”, [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趙大妃) 국상(國喪)(국민 전체가 상복을 입던 \_\_\_\_\_ 초상) 시에 백립(白笠)(흰 베로 만든 갓. 상주(喪主)가 쓰거나, 국상(國喪) 때 \_\_\_\_\_이 씀.) 갓양(갓모자의 밑 둘레 밖으로 둉글넓적하게 된 부분)이 단

연계 작품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해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그러다 금시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해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흥부 부부상」

★ 「흥보가」와 연계되어 출제된 내용

- 「흥보가」의 인물들과 「흥부 부부상」의 시적 대상 모두 \_\_\_\_\_ 앞에서 서로 \_\_\_\_\_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흥부 부부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흥보가」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달리 \_\_\_\_\_ 가치보다 \_\_\_\_\_ 가치를 높이 사는 태도가 드러난다.

**2024  
고2 문학  
해냄**

**2024 고2 문학 해냄 | 3(1)(1) 흥보가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개관**

갈래	판소리 사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교훈적
제재	흥보의 선행과 놀보의 악행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li> <li>빈부의 갈등,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갈등</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4조, 4·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나타난다.</li> <li>과장과 해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i> <li>양반 계층의 한문투와 평민의 비속어가 함께 나타난다.</li> <li>일상적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li> <li>판소리 작품 중 서민적 취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조선 후기 민중들의 힘겨운 생활상이 드러난다.</li> </ul>

**2. 흥보와 흥보 가족들의 성격**

흥보	자신의 가난한 형편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잊지 않으려 함.
흥보의 처	가난한 처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마음 아파함.
흥보의 자식들	가난한 집안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절이 없음이 드러남.

**3. 작품에 드러난 당시 사회상**

- 신분제가 통괴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약화됨.
-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화폐의 힘이 커짐.
-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민중의 생활이 어려워짐.

**4. 작품에 해학이 드러난 부분과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해학이 드러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오.” ~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을 장이 아닌가.”</li> <li>흥보 치례를 볼작시면 ~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li> <li>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땅강댕강하였다.</li> <li>“당신 끓았소.”, “끓다니, 계란(鷄卵)이 끓지 사람이 끓아.”</li> </ul>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이 작품에서는 흥보와 그 가족들이 처해 있는 ‘가난’이라는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웃음으로 회화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 TEST 1단계

## 1. 제재 개관

갈래	판□□ 사□
성격	해□적, 풍□적, 교□적
제재	□보의 선행과 □보의 악행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간의 우□와 권□징□</li> <li>빈□의 갈등, □은 관념과 □로운 생활 사이의 갈등</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4조, 4·4조의 □문과 □문이 혼재되어 나타난다.</li> <li>과□과 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i> <li>양□ 계층의 한□투와 평□의 비□□가 함께 나타난다.</li> <li>일□적 □어와 현□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을 부여하고 있다.</li> <li>판소리 작품 중 서□적 취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선 □기 민□들의 힘겨운 생활상이 드러난다.</li> </ul>

## 2. 흥보와 흥보 가족들의 성격

흥보	자신의 가□한 형편에 슬□을 느끼면서도 양□으로서의 체□을 잃지 않으려 함.
흥보의 치	가□한 처지 때문에 가□들이 고□하는 것을 □음 아□함.
흥보의 자식들	가□한 집안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이 □음이 드러남.

## 3. 작품에 드러난 당시 사회상

- 신□□가 봉□되면서 양□의 권□가 □화됨.
- 상□ 화□ 경□의 발달로 화□의 힘이 커짐.
- 사회적으로 부□가 만연하고 민□의 생활이 □□워짐.

## 4. 작품에 해학이 드러난 부분과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해학이 드러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나오오.” ~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li> <li>흥보 치례를 볼작시면 ~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li> <li>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하겠다.</li> <li>“당신 끓았소.”, “끓다니, 계란(鷄卵)이 끓지 사람이 끓아.”</li> </ul>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이 작품에서는 흥보와 그 가족들이 처해 있는 ‘가□’이라는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음으로 희□□하여 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비□적인 상황을 □음으로 극□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TEST 2단계

1 제재 개관

## 2. 흥보와 흥보 가족들의 성격

홍보	<p>자신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 형편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느끼면서도 <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으로서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잃지 않으려 함.</p>
홍보의 처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 처지 때문에 <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들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는 것      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함.</p>
홍보의 자식들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 집안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 드러      납니다.</p>

### 3. 작품에 드러난 당시 사회상

- **人** **曰** **天** **가** **曰** **天** **되면서** **○** **曰** **○**
  - **그** **○** **가** **○** **薨** **됨**.
  - **人** **曰** **天** **曰** **天** **의** **발달** **로** **[薨]**
  - **曰** **의** **힘이** **커짐**.
  - **사회적으로** **曰** **曰** **가** **만연하고** **[口]** **天** **의** **생활이** **○** **ㄹ** **○** **天** **.**

#### 4. 작품에 해학이 드러난 부분과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오.” ~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

해학이  
드러난 부분

-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나오오.” ~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을 잡아 아니가”

- 흥보 치례를 볼작시면 ~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자결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 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즉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하다

- “당신 끓았소.”, “끓다니, 계란(鷄卵)이 끓지 사람이 끓야.”

##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이 작품에서는 흥보와 그 가족들이 처해 있는 「ㄱ ㄴ」이라 는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 ○ 으로 ㅎ ㅎ ㅎ 하여 ㅎ ㅎ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ㅂ ㄱ 적인 상황을 ○ ○ 으로 ㄱ 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 TEST 3단계

## 1. 제재 개관

갈래	□□□ □□
성격	□□적, □□적, □□적
제재	□□의 선행과 □□의 악행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의 □□와 □□□□</li> <li>▪ □□의 갈등, □□ 관념과 □□□ 생활 사이의 갈등</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조, 4·4조의 □□과 □□이 혼재되어 나타난다.</li> <li>• □□과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i> <li>• □□ 계층의 □□□와 □□의 □□□가 함께 나타난다.</li> <li>• □□□ □□와 □□□ □□를 사용하여 □□□을 부여하고 있다.</li> <li>• 판소리 작품 중 □□적 취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 □□ □□들의 힘겨운 생활상이 드러난다.</li> </ul>

## 2. 흥보와 흥보 가족들의 성격

흥보	자신의 □□한 형편에 □□을 느끼면서도 □□으로서의 □□을 잃지 않으려 함.
흥보의 처	□□한 처지 때문에 □□들이 □□하는 것을 □□ □□함.
흥보의 자식들	□□한 집안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 □□이 드러남.

## 3. 작품에 드러난 당시 사회상

- □□□가 □□되면서 □□ □□가 □□됨.
- □□ □□ □□의 발달로 □□의 힘이 커짐.
- 사회적으로 □□가 만연하고 □□의 생활이 □□□□□.

## 4. 작품에 해학이 드러난 부분과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해학이 드러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오.” ~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li> <li>• 흥보 치례를 볼작시면 ~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li> <li>• 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하겼다.</li> <li>• “당신 끓았소.”, “끓다니, 계란(鷄卵)이 끓지 사람이 끓아.”</li> </ul>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이 작품에서는 흥보와 그 가족들이 처해 있는 ‘□□’이라는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으로 □□□하여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적인 상황을 □□으로 □□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 TEST 4단계

## 1. 제재 개관

갈래	_____
성격	____적, ____적, ____적
제재	____의 선행과 ____의 악행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간의 ____와 ____</li> <li>• ____의 갈등, ____ 관념과 ____ 생활 사이의 갈등</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조, 4·4조의 ____과 ____이 혼재되어 나타난다.</li> <li>• ____과 ____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i> <li>• ____ 계층의 ____와 ____의 ____가 함께 나타난다.</li> <li>• _____와 _____를 사용하여 _____을 부여하고 있다.</li> <li>• 판소리 작품 중 ____적 취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_____들의 힘겨운 생활상이 드러난다.</li> </ul>

## 2. 흥보와 흥보 가족들의 성격

흥보	자신의 ____한 형편에 _____을 느끼면서도 ____으로서의 _____을 잊지 않으려 함.
흥보의 처	____한 처지 때문에 ____들이 ____하는 것을 _____함.
흥보의 자식들	____한 집안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____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_____이 드러남.

## 3. 작품에 드러난 당시 사회상

- \_\_\_\_\_가 \_\_\_\_\_되면서 \_\_\_\_\_가 \_\_\_\_됨.
- \_\_\_\_\_의 발달로 \_\_\_\_의 힘이 커짐.
- 사회적으로 \_\_\_\_가 만연하고 \_\_\_\_의 생활이 \_\_\_\_.

## 4. 작품에 해학이 드러난 부분과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해학이 드러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나오오.” ~ “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li> <li>• 흥보 치례를 볼작시면 ~ 양반(兩班)이라고 여덟팔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li> <li>• 모두 식곤증(食困症)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燒酒)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하겠다.</li> <li>• “당신 꽂았소.”, “꽃다니, 계란(鷄卵)이 꽂지 사람이 꽂아.”</li> </ul>
해학적으로 표현한 의도	이 작품에서는 흥보와 그 가족들이 처해 있는 ‘____’이라는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_____으로 _____하여 _____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_____적인 상황을 _____으로 _____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O / X 문제

【1~20】 「홍보가」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 하시오.

1. 창자의 전문적인 기법을 필요로 한다. .. (O / X)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O / X)

3. 장면을 극대화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O / X)

4.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O / X)

5. 먹을 식량이 없어 나라에 곡식을 꾸려 하는 홍보의 모습은 가난에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대표한다.  
..... (O / X)

6. 육죽을 먹고 곤히 자는 홍보 가족의 모습에서 해학과 골계미가 느껴진다. .... (O / X)

7. 매품팔이가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가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패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 (O / X)

8.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이라며 돈타령을 하는 장면에서 돈의 위력이 높아진 당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O / X)

9. 양반과 평민의 언어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향유 계층이 폭넓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 (O / X)

10.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부각되어 있기에 골계미보다 비장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O / X)

11. 행복한 결말은 고전 문학에서 자주 보이는 결말로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O / X)

12. 제비의 도움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 .... (O / X)

13. 호방은 홍보의 양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매품팔이를 권하였다. .... (O / X)

14. 홍보는 돈을 벌게 되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 .... (O / X)

15. 홍보의 처는 남편을 걱정하며 매품팔이를 만류하고 있다. .... (O / X)

16. 홍보 큰아들은 효도를 평계로 자신의 장가를 조르고 있다. .... (O / X)

17. 홍보 처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을 원망한다. .... (O / X)

18. 양반 계층의 한문투와 평민들의 절박한 표현이 함께 나타난다. .... (O / X)

19. 홍보는 가난한 처지라 양반의 체면을 챙기지 않는다. .... (O / X)

20. 홍보의 아내는 홍보가 환자를 얻어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 (O / X)

- |       |       |       |       |       |       |       |      |
|-------|-------|-------|-------|-------|-------|-------|------|
| 1. O  | 2. O  | 3. X  | 4. X  | 5. O  | 6. O  | 7. O  | 8. O |
| 9. O  | 10. X | 11. O | 12. O | 13. X | 14. O | 15. O |      |
| 16. O | 17. X | 18. O | 19. X | 20. O |       |       |      |

2024  
고2 문학  
해설

2024 고2 문학 해설 | 3(1)(1) 흥보가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이 맞닿은 곳에 흥보와 놀보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다. 형 놀보는 심술쟁이여서 온갖 못된 짓만 한다. 하루는 아우 흥보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며 흥보네 식구를 내쫓는다. 흥보 내외는 자식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고살 길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하다.

아니리

성현동 복덕촌(福德村)을 당도(當到)하여 고생(苦生)이 자심(滋甚)할 제 철 모르는 자식(子息)들은 음식(飲食) 노래로 조르난듸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옛을 사 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나앉으며, “아이구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고동뿌살이 목 성음(聲音)이 나오느냐.”, “어머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불면증(不眠症)으로 잠 안 오는 서름이 있소.”, “그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좀 해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드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되려 주시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孫子)가 늦어 갑니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들더니 기(氣)가 막혀,

진양조

“엇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家長)을 굽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

아니리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邑內)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요.”, “환자(還子) 맡은 호방(戶房)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